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鄭允燁
印刷人 方又柒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洪申善
編輯部長 李政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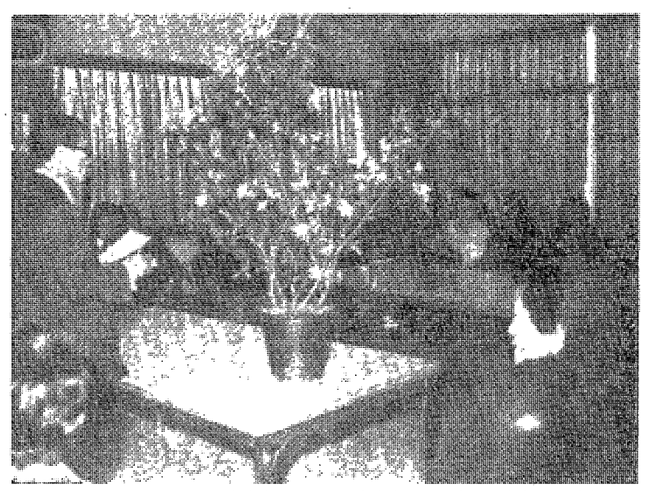
當求智慧,
以然意定.
去垢勿垢,
可離苦形.

너는 너의 귀의 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힘쓰고지혜로와라. 마음의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고 빛나는 하늘에 날것이다.

<法句經>

學期事業計劃 밝혀 特講·圖書擴充등 建議

各 大學 敎授·學生 懇談會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각대학 1학기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懇談會가 지난20日부터 열리고 있다.

勉學분위기 조성및 각 대학의 79학년도 제1학기 사업계획 논의와 호응책 운영을 위한 각 대학교수, 학생대표 懇談會가 지난 20일 經商大를 필두로 시작23일佛敎大, 26일 文理大, 師範大 27일까지 梨花大등이 마쳤으며 앞으로 28일과 29일 工科大와 法政大가 간담회를 남기고 있다.

금년들어 첫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학술행사및 세미나 개최, 特講보완,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중점강좌, 모의주총회등 각종 특강과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신규채용된 교수에 대한 소개와 기념품 증정도 있었다.

또한 불교대학 교수 간담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복지회관교수실에서 열려 불교대학 발전방안 등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李載瑞교수가 『현안 문제』를 논의되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신규채용된 교수에 대한 소개와 기념품 증정도 있었다.

또한 불교대학 교수 간담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복지회관교수실에서 열려 불교대학 발전방안 등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李載瑞교수가 『현안 문제』를 논의되었다.

追加試驗 28·29日 願書交付·接受 日程確定

학점과에서는 79학년도 1학기 추가시험 일정을 오는 4월9일부터 1주일간으로 확정하고, 오는 28·29 양일간에 걸쳐 원서교부및 접수를 받는다.

지난 학기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시험기간 중에 질병등 기타 사유로 결시이유서를 제출한 자와 교수로 결시이유서를 제출한 자의 추가시험은 오는 4월 6·7양일간에 수험표 배부와 시험장소가 발표됨에 따라 이번에 실시 되는 추가시험에는 2부대생을도 1부생과 같은 시험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써클 運營지침 示達

26日, 써클장 懇談會서

79학년도 써클장 간담회가 지난 26일 5시 鄭允燁 武學생처장등 관계교직원과 학도호국단간부및 43개써클 대표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지도부에서 열렸다.

이날 鄭允燁처장은 式辭를 통해 『써클활동은 학생 자율적인것이니만큼 사명감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말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캠퍼스정화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학생지도과의 써클담당자는써클등록에회원신상카드와 단체등록카드 써클및 연구실 운수사항등을 항상 비치하여 동것과 써클보관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에는 각 써클마다 철제 개비넷 1개씩, 책상 3개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써클부서별 새마을 청소담당구역을 배정했는데, 이번부터는 시설제를 도입, 학기말에 모범적 정화사업을 벌인 5개써클을 표창하기로 했다. (1등=트로피·부상 3만원, 2등=〃·2만원, 3등=〃·1만원, 4·5등=트로피)

「就業指導」配付 29~30日 상담실서

學생처취업연구소(소장=崔世和교수)에서는 취업지도 학도호국단간부 상담실(학생회관 1층)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배부중이다.

각기업체의 신입사원 선발현황·직장선택요령·각종 면허요강등 4학년생의 취업에 관한 알찬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後門·師大間 造景道路設置중

솔무처(처장=金鍾周박사)산하 관재과 주관으로 실시된 교육학관부변 조경도로미화및 담장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다.

지난 20日에 본청 교내환경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이번 정화사업은 후문 수위실에서 교육학관사이의 좌측도로에 관상수와 정원석을 배치하였으며, 주변부벽가와의 경계변에 담장등을 설치하여 후문주위가 한결 정돈되었다.

첫 「프로젝트」實施

慶州大學 金庾信장군 墓등서

慶州大學의 제1회 「예비과정이 제79 경주」 예비과정이 陸根培교수, 朴東珠교학주임등 교직원과 소대장급 이상 유신과 호국사상을 주제로 발표, 『한나라가 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은 백년 이상의 政治的 大業이 그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라의 김유신을 숭려, 학자들과 함께 신라통일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훌륭한 政治家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陸根培교수는 삼상세미나를 통해 「김유신과 호국사상」을 주제로 발표, 『신라의 김유신은 숭려, 학자들과 함께 신라통일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훌륭한 政治家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대학의 문리대 소속 5개학과(국문, 영문, 국사, 종교, 한의학과)와 의유대강화를 위한 발언등이 토의되었다.

또한 같은날 복지회관에서 열린 사범대학 교수·학생간담회에서는 대대장 金在益박사·학과 육년봉, 경주대부지등 경상대가 직면한 문제점 및 보완방안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 에서는 李榮彩(수학·4)군의 인사말과 학장격려사, 그리고 지난 학기의 사업보고및 앞으로의 계획안 발표가 있었으며, 각 간부들의 전의 사항및 질문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전의된 사항들을 보면, 교무·행정의 체계화, 도서관정서의 확충및 낡은 도서의 폐기및 보충등의 내용과 사대부속중·고등학교 숙의 환경조정및 후지동, 을료수동 및 벤치설치등 학생복지에 관한 전의가 있었다. 또한 「사원」제9호 및 「사대논총」제2호 발간에 대한 보제와 편집실 구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생회의 행사및 축전의 일원화를 위한 협조및 편집위원 구성방안등이 전의 되었다.

한편 慶林大 간담회가 27일 엘레이어 그화치와 法政大는 28일과 29일 열려 각각 각 대학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經營學科 同窓會 崔炯陽군등 장학금 支給

經營學科 同窓會(회장=趙熙榮교수·경영대학원 학장)에서 모금한 장학금수여식이 27일 4시30분 경상대학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張源동경상대학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趙학장을 비롯한 各期 수석이사·각 과대표·수혜자등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崔炯陽(경영·4)군등 4명에게 총 45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자리에서 經營科同門을 대표하여 趙熙榮회장은 『더욱 학문에 정진, 학교, 국가,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는 인재가되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번 경영학과 교수회의에서 同科 각 학년 대표 1명씩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를 수혜자로 선발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崔炯陽(經營·4)=20만 ▲申炳夏(〃·3)=10만 ▲金大煥(〃·2)=10만 ▲梁鉉卓(〃·2)=5만원.

大學生 勝共敎育 27~30日, 自由센터

文敎部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1일 勝共교육」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본교 1학년생 3백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매일 3個科目씩 80명씩이 참가, 남산 자유센터에서 있게 된다. 27일 해당학과는 行政·警行·都行科이며, 현장에서 출석점검도 있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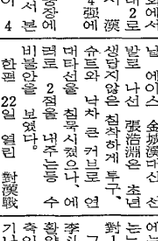
이후 해당학과는 追後 發表 예정이다.

釋林會 임시總會 금년事業計劃論議

釋林會(회장=박진관·僧伽4) 제29차 임시총회가지난23일 지도교수 李萬冠(승가과교수) 박사, 金哲印(승가과) 주임교수를 비롯한교수와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현에서 열렸다.

이날 임명된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리과회장=張炳根(윤리교육전공) ▲역사과회장=朴宗詰(기획부장) ▲지리과회장=趙熙基(총무부장) ▲국어과회장=李敎榮▲총무부회장=鄭靜源(문예교육전공) ▲교육과회장=徐仲筑▲수학과회장=李敎榮▲총무부회장=鄭靜源(문예교육전공) ▲사회과회장=金柒(역사교육전공)



◇張炳根회장

신입회원과 재학생회간의 상견식과 에산삼심의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李智冠교학과장은 『어려운 한국불교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는 각별한 분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원들 상호간에 화합하고 탁마하는 정신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敎育大院 任員選出 총회장에張炳根씨

敎育大學院(院長=鄭在覺박사) 제1기 학생회장단에 張炳根(윤리교육전공) 총회장등 7명의 任員과 회장이 선출되어 지난 12일 鄭총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윤리과회장=張炳根(총회장겸임) ▲역사과회장=朴宗詰(기획부장) ▲지리과회장=趙熙基(총무부장) ▲국어과회장=李敎榮▲총무부회장=鄭靜源(문예교육전공) ▲수학과회장=徐仲筑▲사회과회장=金柒(역사교육전공)

◇張炳根회장

黃哲淳군등 4名 體育勳章·表彰狀 수여

◇黃哲淳군

◇金鍾奎군

본교 黃哲淳(경영·4)군등 체육부선수 4명은 제8회 아시아경기대회및 제10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입상, 國威를 宣揚한 공로로 문교부로부터 체육훈장및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교부는 지난 23일동양교육연구원강당에서 한국체육에 공이 큰 임원·선수에 대해 표창했는데 이자리에 본교의 黃哲淳군은 제8회 亞洲大會 복싱에서 금메달을, 金鍾奎(體敎·4)군은 테스팅서 銀메달을 획득, 각각 체육훈장을 받았다.

이날 훈장및 표창을 받은 본교 선수는 다음과같다.

▲黃哲淳(권투·경영·3)=체육훈장 白馬章▲金鍾奎(체육·4)=체육훈장 ▲黃哲淳(권투·경영·3)=체육훈장 白馬章▲金鍾奎(體敎·4)=체육훈장 ▲韓大化(야구·體敎·1)=대통령표창▲張炳根(〃·〃·〃)=대통령 표창.

敎生實習 16日부터 東大附高등서 4週間

79학년도 卒業豫定者중 師範大생및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생실습이 오는 4월16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敎務處(처장=李昌宇박사)에서는 27·28양일간 실습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교생실습 일정에 따르면 오는 4월12일의 오리엔테이션 실시에 이어 4월16일부터 5월12일까지 4주간 東大附中·高 明星女中·高와 기타 각 中·高等學校에서교생실습이 실시될 예정이다.

실습신청은 27일부터 사범대학생은 師大 敎學課로,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무과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구비서류는 신청서, 명함판사진 2매, 실습비로 되어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敎生實習을 받지 않으면 사범대학생의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고 교직과정 이수자들은 교직과목의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學生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日, 化學科세미나 성용길교수演士로

文理大 화학과(주임 교수=朴觀鎬)에서는 오는 30일 오후3시 공대 세미나실에서 성용길(부산대)교수를 강사로 한 세미나를 갖는다.

一鵬禪院서 高燈佛事 國際法會

陰4月8日擧行

一鵬禪院(회장=徐京保교수·世界禪學會長)에서는 세계선학회와 공동으로 「高燈佛事 국제대법회」를 오는 음력 사월초파일에 거행할 예정이다. 또한 「一鵬禪院에서는 3월24일부터 초파일일까지는 國運隆昌을 위한 기도법회를 徐박사 주재로 갖는다. 이 기도법회에는 미국·일본·중국·홍콩·싱가폴등 각국의 佛 신도들이 참가하게 된다.

經營科同窓 장학금 3名에 支給

◇黃哲淳군

◇金鍾奎군

社告

敎修記者募集

大學言論暢遠에 先驅的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아래 要領으로 참신한 男女修習記者를 모집합니다. 將次 言論界로 進出하고자하는 뜻있는 學生들의 많은 應試를 바랍니다.

①募集人員=약간명 (慶州大포함)<일반·寫眞·만화·컷記者>
②應募資格=本校 1學年男女在學生
③제출서류=본사소정양식 1통(바탕증)명함판사진 1매
④원서접수=79年 4月1日~4月10日
⑤시험일자=79年 4月14日(土)
⑥시험과목=國語 英語·作文·面接
⑦제출처=본사 총무부
※修習記者는 規定에 의하여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함
※시험시간및 장소는 추후 본보에 발표.
※慶州大는 경주대 교무과에 문의 바람.

1979年 3月 日

社團法人 東大新聞社

1學年대상, 10日 마감 大學言論의 旗手

經大院 「환경特講」 再開

26日, 金在益 박사 招請講演

經營大學院(院長=金鍾選 박사)환경특강이 지난 26일 6시30분 金在益(경제기획원기획국장)박사를 연사로 하여 대학원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합체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80년대를 향한 경제운용계획및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金박사는 『80年代 우리經濟의 高度化와 國際化를 지속,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과 企業의 기술혁신, 경영개선이 전제가 된다』며 놀랄만한 경제질서 확립과 국제 競爭力을 강화, 수출증대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應援歌·구호募集 護國團體育部서

학도호국단체육부(부장=방윤식·體4)에서는 노동력 체육진흥을 뛰받침하기 위해, 응원부원및 응원가·응원구호를 계속 모집하고있다.

응원가는 쾌활한 行進曲풍의 곡이나 또는 기존曲에 改詞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며, 응원부원은 열의를 가진 학급학년을 환영한다. 동급인들의 많은관심과 응모를 바란다.

자세한 것은 호국단 운영위원실(학생회관 內)로 문의하면 된다.

敎授動靜

▲宋赫·趙鎬榕(慶州大)교수=지난 20일 慶州佛敎청년회 주최로 경주시내 능곡예식장에서 열린 「萬海民族思想강연회」에서 「萬海의 祖國觀」을 주제로 각각 강연.

慶州大學 「프로젝트」 實施

釜山市長旗 大會에 野球部 出戰

본교 야구부는 오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시장기 대회에 필승의 각오로 도전한다.

전국 대학팀이 모두 출전, 토너먼트로 패권을 다투게 될 이 대회는 短期戰이라는 점에서 본교팀의 浮上이 예상된다.

한편 이 대회가 끝나면 4월26일부터는 서울에서 춘계대학연맹전이 5월13일까지 풀리그로 펼쳐지게 된다.

野球 決勝 진출 坐礁

金亨鍾군 打擊賞受賞

본교 야구부는 지난23일 패막된 대통령기 대회에서 장쾌 연세대를 4대2로 제압했으나 준결승에서 漢陽대에 自滅, 아깝게 4점에 머물렀다.

지난 21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준결승에서 본교는 1년생 張浩淵이 4연패를 노리는 인대타석을 6회까지 산발 3안타로 막아내는 力投, 朴田燮의 2루타 韓大化의 연타석 3안타등 長短 9안타를 터뜨려 낙승을 거두었다.

이날 에이스 金城漢대신 선발로 나선 張浩淵은 초년생답지 않은 침착하게 투구, 슈트와 낙차 큰 커브로 연대타선을 침묵시켰으나, 에러로 2점을 내주는등 수비불안을 보였다.

한편 22일 열린 漢戰에서도 本校는 張浩淵—金城漢의 계투로 漢大타선을 봉쇄하면서 洪淳萬·金炫澤 2루타등을 터뜨려 안타수에서 앞섰으나, 결정적 실책으로 自滅, 「제임」 연세대를 4대2

大學生活의 計劃과 實踐

社說

大學生活을 가장 값지게 計劃하고 실천하려는 욕망은 모든 학생들이 共有하는 욕망이다. 더구나 이제 대학생활을 처음시작하는 신입생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리라. 4학년 제군의 심정은 나머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는 욕망과 함께 사회진출을 앞두고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아쉽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대학과정의 4년이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또한 학문과 젊음을위해 충분한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新入生의 경우, 무엇보다도 생활환경이 바뀌게 되므로써 찾아오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냐 하는 것이, 먼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고등학교시절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父母依存的 생활환경으로 일관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관단해야 되는 독립된 인격체의구실을 요구받게 된다. 여기에서 계획없는 생활은 곧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학업과 젊음을 즐기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은 자기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냉철히 분석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범위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축물이 방대한 설계도면이 먼저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설계도면이 확실하고 튼튼해야 건축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대학생활의 설계도면이 확실하여야 할 시기는 1학년 1학기,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대학생활을 시작한지 1, 2년이 지난 2, 3학년 학생들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현상은 세부적인 진로결정에 대한 방황과 매너리즘이다.

학문에의 정진은 機械物과 같이 부품을 이루어 짜내는 형태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교양과목에 일방적으로 심취하려거나 조급하게 전공과목에만 매어달리려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수있다. 그 어느 경도 타당한 학문태도라고 볼수는 없지만 서태도들 중시한 바 없지 않아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졸업만 학점을 채운 사람은 특히 학부생활을 결산하는 한 학년 남다른 계획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공한 체험을 길러 독립된 社會的 人格體로서 민족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밑받침을 쌓는 일이야말로 것이며, 동북인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지고 이 국신한 경쟁사회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선진대열의 역군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길러온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서 나머지 1년간에 학문의 기초인 밑받침을 튼튼히 하고 사회진출의 방향을 심사숙고하므로써 사회진출의 견고한 第一步가 시작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모든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학생처(교수실내부처)의 것은 先輩(교수)들이 이미 누구도 밟아볼수 없는 한두 길잡이가 되어 참고 받아들여서 깊이있게 참고하여 결정하는 사실이다. 가나긴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다. 모든 학생이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禪과 映畵

俞賢穆 〈文理大 교수〉

나는 뉴욕크에서, 팔 년 전으로 떠나야만했다. 그러나 이것을 주저하게 만드는것은, 마침 뉴욕크에서 映畵祭가 있으므로 2주간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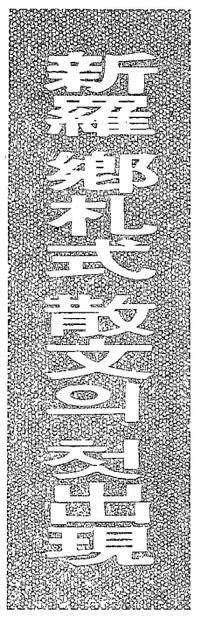
美·英·獨敵府招請케이스이기 때문에 박학한 日程에 묶여 고민했지만, 이 盛祭는 第一次大戰後의 前衛映畵時代와 相應하는 第二次大戰後傾向의 實驗映畵時代에 있어서, 그 核心運動이 뉴욕크 心人物인 죠나스·메카스가 主宰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主題로 잡고 있는 主題思識과 방법을 현대적철학의 虛像과 무의식의 심경을 집요하게 색르은 次元의 파악을 시도하는 過程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죠나스 메카스의 작품인 「日記」는 그 上映時間이 장장 8시간인데, 전체의 映像내용은 지극히 단순하게도 그 건물을 시종 仰角으로 찍어서뿐이다. 고정된 被寫體를 장시간 응시하는 관객자세란 앞서와 같다. 다만 動搖 대신 靜觀을 통해서 그 映畵조건적인 시간성이 메꾸는 有機的인 空間性의 변화인식을통해서 他차원의 인식세계를 투도하는 방법이다.

말하는 열광적인 히피 족들의 젊은이들을 禪의 한 방법감을 이 영화적 수단에 무한한 마력을 갖는것 했다. 靜寂문명의 욕구에 따른 禪에의 동경이 이러한 기계예술수단인 映畵美學의 영역에까지도 침식해 온다는 것은 자못 흥미스러운일이 아닐수 없다.

「新羅華嚴經寫經」跋文에 쓰여져 吏讀아닌 鄕札, 散文으로선 最初

日常文章에 사용했다는 증거, 획기적인 語學硏究자료



金起東 〈文理大 교수〉

◇최근발견된 「新羅華嚴經寫經」의 跋文사진. 이 跋文은 향찰로된 최초의 散文으로 어학연구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한다.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乙未朔二月十四日一部周了成內之成內願言者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第一恩賜父母爲內願第二法界一切衆生成內法者植根中香水散以成賜乎經成內法者植根中香水散願生長令內願然後中若得皮那晩皮練那紙作心十部經寫筆師經心道那佛菩薩像等師走使人挑燈戒授令願食願石臨人等若大小俸爲戒若師宿戒若食願爲寫者水用願沐浴令與但作處中進在之經寫時中並淨香爲內新淨衣捏水衣捏衣冠等肚願令只者二青衣童子燻頂針筆願文青衣童子者四使樂人等並侯樂爲願文一人香水行道中散願文一人花繡行散願文一法師香願師等各香花鑪爲石念道爲作處蓮塗師等供養爲內願師菩薩花經經等供養爲內願師菩薩在如經心作願佛菩薩像作願內願青衣童子侯樂人等除奈淨法者上同之經心內中一又舍利願入內如

○爲內願：「위하샨」(하시사)로 읽는다.
○爲內願：「위ᄒᆞ여」(하여)로 읽는다. 「爲」는 「ᄒᆞ여」(하여)로 읽는다. 「爲」는 「爲」의 略字로서 「爲」의 略字로서 쓰게 된 것을 「爲」의 略字로서 「爲」의 略字로서 「爲」의 略字로서

新入生의 身上明細를 알아본다

○…처절한 경쟁의 門을 뚫고 ○…천9백60명의 새東國人。그 ○…더운다는 올해는 마이너스요인 에도 불구하고 2·6대1로 높아진 것은 경쟁률 폭선에 있어 금년도가 상향곡선에 있다는 점과 입시과목조정이라는 요인이 작용했던것으로 풀이된다。금년도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學科는 경주대 경영학과로 40명 모집에 6백15명이 지원, 15·3대1이라는 살벌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울는교에서 가장 높은 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낸 공경과는 전반적으로 작년의 호조에 못미친 공과대며 가운데서 두명이 부각되면서, 예비고사 평균점수가 전체학과중 11위로 부상하는 괄목한 현상을 나타냈다。

한편 세칭 「인기학과」가 집중된법정대·경상대·공과대의 경쟁율이 각각 3·3대1, 2·7대1, 3·9대1로 「비인기학과」의 文理大(3·3대1) 농림대(2·3대1) 등에 비해 그리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이는 물질우선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기학과」 보다는, 필답고사 폐지로 인한 美術科·演藝科등에 농계열학과의 경쟁을 겨냥, 자연계학과의 수험과목이 수학(Ⅱ)로 바뀌는 등의 人試과목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었던 예비고사의 영향으로 본교각학과의 비고사 평균 점수는 전체적인 상승추세를 보였다。예비고사 평균이 2백30을 넘는 우수학과는 2백61·1의 경영학과를 비롯 모두 17개학과로 다음과 같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열문학과, 회계학과, 정외과, 전산과, 경행과, 工經科, 사학과, 도시행정과, 전자공학과, 農經科, 國文科, 哲學科등이다。여기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상대의 10개학과는 모두 17位안에 들어, 우수학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따라서 경쟁율의 퇴조라고 보는 일기학과 전선해는, 다양성이 없는 것으로 분수충 6위로 뛰어, 같은 文理大중에서도 두뛰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경쟁율이 높은곳은 있어서 많이 떨어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

68% 學生, 서울·京畿出身

再修生 비율 자꾸 저하추세

佛敎47·9%로 크게 늘고, 無宗敎는 45·1%로 줄어

「人氣學科」의 경쟁률 두화되

서울대학 각 고교들의 평균화 작업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 평준화가 고른 합격자를 낳으며, 또한 과거 많은 수의 학생이 대거 합격고사제로 바뀐뒤 양상이 5년도시연 작년의 경향과 차츰 비슷해 졌으나, 10명이상 합격고교는 76년도 49교, 77년 40교, 작년 40교로 해에는 25개교로 크게 줄어 결국고 본 합격률을 보였다는 결론이 얻어졌다。

보호자의 직업별 통계에서는 예년과 같이 상업이 0명이 재인식되고있는 사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같다。

보호자의 직업별 통계에서는 예년과 같이 상업이 0명이 재인식되고있는 사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같다。

<題字·金遠鳳>

<10>

Ⅲ. 중요한 公演들

□第2期의 公演方式

⑤

제2기에선 도합 7편의 작품을 상연하였는데 제1기와는 전연 다른 공연방식을 택하였다。제1기의 연극이 거의가 기성극단의 모방에 지나지 않았던데 반해 제2기는 작품선택부터 공연에 이르는 연습 및 상연방법까지 모두가 탈피했다。제1기의 작품이 불탄점이나 개교기념축제의 일환으로 공연하였기에 작품의 성격이 불교색채가 짙은것이었다면 제2기의 작품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생이 지녀야할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그런 작품들이었다。

그러므로 한편의 작품을 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같은 절문이 제기된다。첫째, 경제적인 조건이 해당작품을 극화할 수 있느냐? 둘째, 예술적이 있는가? 셋째, 이로 인해 어떤 질을 얻겠는가? 넷째, 해당 작품을 해당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을 상연하였는데 제1기와는 전연 다른 공연방식을 택하였다。제1기의 연극이 거의가 기성극단의 모방에 지나지 않았던데 반해 제2기는 작품선택부터 공연에 이르는 연습 및 상연방법까지 모두가 탈피했다。제1기의 작품이 불탄점이나 개교기념축제의 일환으로 공연하였기에 작품의 성격이 불교색채가 짙은것이었다면 제2기의 작품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생이 지녀야할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그런 작품들이었다。

그러므로 한편의 작품을 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같은 절문이 제기된다。첫째, 경제적인 조건이 해당작품을 극화할 수 있느냐? 둘째, 예술적이 있는가? 셋째, 이로 인해 어떤 질을 얻겠는가? 넷째, 해당 작품을 해당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가? 다섯째 작품의 성격과는 어울릴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런 <작품선택의 여건>은 생각지 않았던 것이었다。오로지 회원들의 관심은 공연보다는 연구(학구와 작품)에 집착했던 것이다。

제1회 작품 「假裝人生」만하더라도 이 작품을 선정하기는 5월인데 공연은 11월에 중앙극장에서 있었던 것만 보아도 그당시 극예술연구회원들이 작품연구와 작가연구, 그리고 연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를 알수있으며 경제적 여건(작품선택의 여건)을 제쳐서 않고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밀고간 투지는 요즈음 대학극의 현실에비 추어볼때 놀이 사지 않을수 없다。그들은 「假裝人生」의 큰 성공으로 확기를 찾은후제작품의 「櫻花園」을 선택했는데 이것 역시 4·5개월이란 긴연습을 통해상연할수 있었다。

그리고 배역 선정에 있어도 회원들은 여러가지 난관을 이용하여 신중하였던 것이다。특히 「櫻花園」에서는 히로인에 沈玉潔씨가 맡았으나 후에 사정에 의해 李淑貞씨로 바뀌었고 趙誠夏씨가 녹음실에 전념 자리에 눕는 바람에 급히 대역을 金鎭福씨로 바꾸었으나 이 사정을 눈게 안 金鎭福씨는 중간에 그만두어 趙誠夏씨가 완쾌될 때까지 기다려서 상연하기도 하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었다。

연습은 수업이 끝난 오후, 현재 교오동고속 리미널이 있는곳(이곳에는 했모습을 갖춘 건물이 있었으며 60년말까지 동리기는 1백번이상 작품을 읽게 되고 동작에 들러 연습을 하였고 동작에 의해 작품을 선택하였다。

제2기에선 도합 7편의 작품을 상연하였는데 제1기와는 전연 다른 공연방식을 택하였다。제1기의 연극이 거의가 기성극단의 모방에 지나지 않았던데 반해 제2기는 작품선택부터 공연에 이르는 연습 및 상연방법까지 모두가 탈피했다。제1기의 작품이 불탄점이나 개교기념축제의 일환으로 공연하였기에 작품의 성격이 불교색채가 짙은것이었다면 제2기의 작품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생이 지녀야할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그런 작품들이었다。

그러므로 한편의 작품을 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같은 절문이 제기된다。첫째, 경제적인 조건이 해당작품을 극화할 수 있느냐? 둘째, 예술적이 있는가? 셋째, 이로 인해 어떤 질을 얻겠는가? 넷째, 해당 작품을 해당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느냐? 다섯째 작품의 성격과는 어울릴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런 <작품선택의 여건>은 생각지 않았던 것이었다。오로지 회원들의 관심은 공연보다는 연구(학구와 작품)에 집착했던 것이다。

제1회 작품 「假裝人生」만하더라도 이 작품을 선정하기는 5월인데 공연은 11월에 중앙극장에서 있었던 것만 보아도 그당시 극예술연구회원들이 작품연구와 작가연구, 그리고 연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를 알수있으며 경제적 여건(작품선택의 여건)을 제쳐서 않고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밀고간 투지는 요즈음 대학극의 현실에비추어볼때 놀이 사지 않을수 없다。그들은 「假裝人生」의 큰 성공으로 확기를 찾은후제작품의 「櫻花園」을 선택했는데 이것 역시 4·5개월이란 긴연습을 통해상연할수 있었다。

그리고 배역 선정에 있어도 회원들은 여러가지 난관을 이용하여 신중하였던 것이다。특히 「櫻花園」에서는 히로인에 沈玉潔씨가 맡았으나 후에 사정에 의해 李淑貞씨로 바뀌었고 趙誠夏씨가 녹음실에 전념 자리에 눕는 바람에 급히 대역을 金鎭福씨로 바꾸었으나 이 사정을 눈게 안 金鎭福씨는 중간에 그만두어 趙誠夏씨가 완쾌될 때까지 기다려서 상연하기도 하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었다。

연습은 수업이 끝난 오후, 현재 교오동고속 리미널이 있는곳(이곳에는 했모습을 갖춘 건물이 있었으며 60년말까지 동리기는 1백번이상 작품을 읽게 되고 동작에 들러 연습을 하였고 동작에 의해 작품을 선택하였다。

既成劇團의 모방 탈피해 公演보다 作品硏究에 관심

櫻花園·假裝人生 등 7편 상연

「박수」로 敎授님 노고報答

「質」택한 新規써클등록

「櫻花園」에서 재주를 익힌 회원들 「假裝人生」에서는 작품선택의 여건 「박수」에서는 연구·연습

「박수」로 敎授님 노고報答

「質」택한 新規써클등록

「櫻花園」에서 재주를 익힌 회원들 「假裝人生」에서는 작품선택의 여건 「박수」에서는 연구·연습

慶州大 11대1 全國 최고경쟁률, 漢醫豫科엔 14名이 中國人

경주대학 實態

경주대학 實態

韓振新書 1

佛陀의 새얼굴

한국어판
세계인의 교양지
리더스 다이제스트
4월호 발매 개시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국어판이 창간 4개월만에 발행부수 10만부를 돌파했읍니다.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명실공히 이나라 최대의 교양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양인들에게 충실한 벗이 되고 있읍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값:₩500
수요목차
「유령의 도시」 평양
나는 털이로소이다
45분간의 죽음
●행복은 어디에?
●트럭에 사랑 싣고 달린 50년
●외계인과의 대화 —여보세요, 여기는 지구입니다!
●중남미의 재벌 독재자 소모사
●정신병을 수술로 고칠 수 있는가?
●英韓対訳 : "Glory of April" 영광의 4월
●누구나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다.
●이달의 명작 다이제스트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된 다이어먼드 목걸이
合同通信社발행
리더스 다이제스트 영업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8-4
전화 : 74-0151~7(교)73-8056(직)

79年 初를 장식하는 最優良圖書!
이 책은 미국의 知性 제럴드 섹터가 1960년대 아시아 불교의 여러 현장을 저널리즘을 통한 역사적 인식으로 파헤쳐 불교의 새로운 전형을 추구한 작품으로, 젊은 승려 覺丁스님이 번역을 하고 民衆詩人 高銀 선생이 책임감수했다.
저자 제럴드 섹터
월남불교지도자 트리 쾅
● 66년 초여름 베트남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9명의 불교도가 분신자살(焚身自殺)했다. 불타(佛陀)의 새 얼굴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국판 244면 정가 1,700원
韓振出版社 251-8296 269-4208 267-2723 서울 中區 筆洞3街62-15

●만17세~25세 ●입영…병역면제 ●대학교 편입수준 복무년한 단축혜택 ●복학시기조절이 가능 종로1가 버스정류장 서울능협원동보이2층 관인 유니타자학원 (구유니온)
두 행정지원모집
79년 7·8월입대희망자 (4월5일한 정원모집 마감)
☎2323·9716

新裝移轉
英語·独語·日語
開講 ⇨ 4月2日 〈수시등록접수〉
留学英語
高級英作
英文解釋①②③
TOEFL TIME
AFKN(통신반있음)
三位一体, DIGEST
English 900 會話
生活英語會話 必須英語
Word power 英作文秘訣
TOEFL 就職英語
基礎会話, 美人会話
Vocabulary 10,000(20,000)
TOEFL 受験英語
大学編入英語
留学国史 時事論文
日語班(初·中·高級) 會話班
独逸語文法完成, 独文解釋.
院長 : 文昌淳
종로2가종각뒤旧EMI자리 74-2442, 72-9226,
시사영어학원
時事英語学院

종로피자
다정한 사람끼리
눈과눈을 마주 보며
정감어린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세요
이태리식 전통피자
칵테일
☆미팅·각종 모임 장소 제공☆
피자전문 종로피자 75-0457
중앙청 대한교육보험 종로카빈 서대문 100m 국제극장 동아일보 남대문

悲劇的 체험의 藝術

김호세

李仲燮 論

韓國美術의 神話 창조

時代와 무관하게 藝術世界서 방황
未發表作展, 모든 小道具 한껏 활용

◇생시의 李仲燮

중섭(仲燮)은 죽었다. 살아서 일을 다하지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면 그 얼마나 속된 생각일까? 人生의 꿈은 無에 이르렀지, 다만 사람이 남긴 창조의 결과물만이 세상의 자연처럼 하늘과 바다 처럼 남는다.

9월이 막 접어들었을 때 黃廉秀선생은 중섭을 찾아간적이 있었다. 그때 중섭은 수염도 거부하고 평생토 거부하고 식사도 거부한채 평상에 누워 오직 「남덕아! 남덕아!」 하는 한마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남덕은 그의 동경문화학원시절에 사귀 일본인 여자친구로 후에 그의아내가된 야마모도(本山方子) 였다. 갑자기 그 시체같은 중섭이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중섭의 손이 이내로 빨빨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손을 펼수 있을까 전이날 정도로 黃廉秀선생은 그때 심한 異感을 느꼈다고 한다.

중섭은 그의 아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었다. 그림면서처자에대한애임없는 애정과때를각는듯한 고독, 초조와 실의의 비극적인정을 살다간 그는 그 시대와는 전말로 무관한 예술의 세계속을 방황하였다.

예술가에 있어서, 그예술이 남겨져 누리게 되는 예술적 숨리는, 연는 사람들에 의해선는 이해될수 없는 예술이상의 비극적 체험에 의한 보상인 것이다.

얼마전 평자는 부산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 미발표 이중섭전을 대절 기회가 있었다. 이때의 작품들은 주로 1950년에서부터 그가 죽은 57년사이의 작품들로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60년대전후의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것들이었다. 그의 작품에 대적이 없는 것과 충실한 청적의 작품이 없는것은 그가 살다간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역사적 문제에서 온 빈곤에 원인이 있는지도모른다. 그러나 그는 주위에 있는 모든 소도구와 재료들을 함껏 활용하여 아름다움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마지 집후 서양의 다다이즘 초현실파 시인것은 잘못인것같다. 사실 관중들의 관단은 정이 실패이었다. 4구를 끝 다나간 늙은 곰 박행이 속되었다. 1회초 2루수의 다음으로 나간 한대 李根植이번 우리팀이 출전한 두 번 클린업 트리오가 년무 첫째, 너무나 두드러진 수 못지고 있었다는 생각해보고 지적하고싶다. 전제적으로, 3, 4, 5 번 클린업 트리오가 안타까움 넘어갈 문제로 있었겠으나 이 점은 결정적인 불길(火運)의 원인인 황달간경화로 누워계 된 자신의 일들을 달로 상징하여 죽음의 예감을 명시시킨 작품이다.

김남태

<文理大 國文科>

에저또 「내 이름은…」 쎄실극장, 29일부터

극단 「에저또」가 창단11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본 작품의 원작자 체이스 여로 소외된 인간의 정신상사는 1936년 「New Yorkire Don't Hu」란 희곡으로 극작가로 데뷔했던 본 작품은 45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상연 퓨리처상을 획득하기도 했다.

본 작품의 원명은 「루카」 「하얀토끼」 「하비」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연이다.

환타지에 해당하는 작품의 스타일은 코믹, 충만시켰다. 우리가 매기진하는 작품의 특징이었다. 그녀의 주인공 「벨」에 찾아 부식되어 우리는 생각했다. 벗어던진 옷을 발치에 우리의 기도와 차이를…" 그녀가 자기 전에 하는 우리의 기도와의 그녀는 그녀는 무어라 도하는 것일까? 기도가 끝나면 무언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의 취침기도나 지는 손발제외하고 그 하나가 일어서고 나머지는 누워서 기도도 그 기도를 들었다. 기도도 오늘도 똑같았다. 그래주면 고맙게 보내게 해주어서 감사하는 것. 고맙게 계신 그래주면 분들도 그래 주다는 것. 취침기도가 우리에게 닥게 정을 때 우리는 당황했다. 무어라고 기도해 줄 것인지 일요예배에는 규제에 묶이게 되었던것이다. 그 기쁨밖에 없었고 기쁨밖에 없었고 기쁨밖에 없었다. 우리는 놓칠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놓칠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놓칠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